국민경제 좀먹는 주범, 재벌

강연초록 '경제개혁을 위한 대토론회'

정경유착이 사회전반 영향력행사 가능케 해
대기업, 원천적 소유자인 국민에게 반환돼야

오늘날 한국경제는 국제수지 적자와 물가상승으로 집약되는 어려움 가운데 놓여있다.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물가와 다른 신흥 공업국에 비해 뒤떨어지는 국제경쟁력의 상태와 저하는 한국경제구조를 흔들어 놓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한국경제의 위기상황은 어디에서 기인한 것일까?

지난 15일 동국대 동국관 L-501호에서 개최된 '경제개혁을 위한 대토론회'에서는 한국의 경제위기는 대중수탈적으로 자본을 축적한 독점재벌에서 기인한다는 전제하에 그 해결책으로 재벌체제와 경제구조의 개혁을 내세웠다.

이날 토론회에서 첫 주제 '토지문제의 실태와 그 해결방안'을 발제한 송병춘(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 정책실장)씨는 소비자물가 상승폭의 두배 이상이 되는 땅값 상승폭은 수요에 비해 땅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만은 아니며 부동산매입에 환장 열을 올리고 있는 재벌기업에 그요인이 있다고 주장했다.

재벌기업들이 보유한 많은 토지가 순수한 생산 목적이 아닌 투기용이라고 단정지을 수 있는 근거로 토지구입 방법에 있어서 친인척과 회사 임원의 이름을 빌리는 것을 제시하며 그러한 재벌기업들의 토지독점의 폐해로써 근로만중의 수탈, 국토의 불균형적 개발, 제조업의 경쟁력 약화 등을 들었다.

이어 송병춘씨는 재벌독점에 따른 토지 문제의 해결책으로 민중적 통제에 의한 토지개발과 이용, 소유독점을 해소하고 다양한 소유형태로 분산, 토지의 사적 거래 제한, 토지관련 조세제도 개정비 등을 제시했다.

두번째 주제 '경영합리화 원칙과 금융실명제'를 발제한 배영목(충북대·경제학)교수는 경제불황의 늪을 빠져 나오기위해 실질임금의 인하를 위한 임금통제를 실시하고 있는 정부의 그릇된 방식을 지적했다. 정부는 80년대 후반 호황속에서 부동산투기의 광풍이 몰아쳐지자 이에 대한 여론을 무마하기 위해 1989년 4월 투기자본의 활동을 규제하기 위한 토지공개념과 도입을 공언하고 금융거래의 정상화를 기한고자 금융실명제를 실시하기로 천명했었다. 그러나 2년후 이 조치를 취소시킴으로써 정부의 정책은 독점자본의 규제보다는 비호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났다. 배교수는 재벌들이 정치권력에 유착하여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그것으로 실물자산을 축적하고, 그 실물자산을 담보로 새로 대출을 받아 실물자산을 재축적함으로써 독점자본을 이루어 왔다고 설명하며 그러한 과정속에서 인플레이션, 부동산투기, 금융독점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배교수의 발제에 이어 김태일(상산상분부노조 시무장)씨는 재벌의 금융 독점을 막기위해선 재벌이 금융산업을 직접 경영하는 것을 반고, 민영화된 은행에 노동조합의 경영 참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설명하며 근본적인 해결책은 민중에 의한 민주정부가 수립되어야 이루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 주제 '재벌체제와 경제구조의 개혁'을 발제한 장상환(경상대·경제학)교수는 오늘날 한국경제에서 생산수단을 소유한 핵심적 주체인 독점 재벌의 비대화와 그 수의 증가에 따른 폐해로 자원의 효율적 분배 왜곡, 고용축소, 독점이윤의 획득, 기술진보 지체, 소득불평등 심화, 물가등귀, 낭비 등을 들었다.

김근대교수, 가부장적 독점자본인 재벌은 생산력 발전에 있어서 오히려 부정적 기능을 하고 있으며, 또한 경제활동 지배라는데 그치지 않고, 사회 모든 분야에서 그 영향력을 행사하려 하고 있다는 것이다.

토지공개념과 금융실명제의 도입 없이 행해지고 있는 정부의 경제정책은 완전정책인 신산업정책은 이루룬인 유명무실한 정책이다. 재벌중심의 경제구조가 현재의 경제위기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므로 재벌에 의해서 발생한 문제들은 재벌을 해체해야만 해결할 수 있으며 재벌기업은 마땅히 완전적인 소유자인 국민들에게 되돌려져야 한다고 말했다.

군두에 기반을 두고 재벌과 유착되어 있는 현정부 주도하에 재벌 해체가 추진될 수는 없는 것이며 재벌해체는 민중의 힘에 기초한 민주정부에서 나올 수 밖에 없다고 확신하는 장교수는 재벌 지배가 재연되지 않도록 하기위해서는 신식민지적 경제구조를 근본적으로 청산하고 기술적 확립한 자립적 국민경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리 : 안성모記者〉

시스템이론의 중국적 수용

서평 삼론(三論)과 맑스주의 인식론

전통적 인간관·농업에도 시스템적 사유
단선적 인과 계열과 환원론적 분석 지양
세계를 통합된 관계의 집합으로 인식

김 수 중
〈문리대 철학과 교수〉

인간을 달에 실어다 준 아폴로 11호 우주선은 7백만 여개의 부품을 가지고 있으며 이 사업에 동원된 인원은 42만명을 넘었다고 한다. 이렇게 거대하고 복잡한 조직을 관리하기 위하여 '시스템공학'이라는 분야가 생겼다. 한편 '일반시스템이론'은 물리학, 생물학, 심리학, 사회과학 등 다양한 개별과학 속에 담긴 체계들에 적용될 수 있는 일반원리를 탐구하며, 또 '시스템철학'은 현대의 과학적 성과에 바탕하여 세계를 총체적으로 새롭게 설명하고자 시도한다. 시스템이론은 위에서 예로든 일반시스템이론, 시스템 공학, 시스템 철학등 세가지 층차로 구분될 수 있다. 시스템론자들은 시스템이 지연계나 인간사회 혹은 사유세계등 모든 영역에 적용되는 하나의 보편현상이라고 본다. 경제는 부분의 총합 이상의 것이다. 구조론자의 '부분의 질서'는 기능으로서의 '과정적 질서'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시스템이론은 현대적 상황에서의 요청—복잡한 현대사회의 합리적 관리 및 자연과 인간에 대한 총체적 이해를 위한 '교우과학(交叉科學)' '학제적 연구(學際的 硏究)'이나 '횡단과학(橫斷科學)' (학제적일반이론(學際的一般理論))의 필요성—에 근거하여 출현하였다고 할 수 있다. 시스템이론을 제창한 버틀란피(L. V. Bertalanffy, 1901-72)는 생물학에서 대립되 두 이론인 기계론과 생기론(vitalism)을 연구하고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시스템이론을 제안하였다. 그는 후에 이러한 사고를 더욱 일반화하여 인간과 사회의 각 분야에까지 폭넓게 적용할 수 있는 '일반시스템이론' (1940, 1968)을 내놓았다. 이후로 시스템론의 사상은 Wiener의 사이버네틱스, Shannon의 정보통신이론, Laszlo의 시스템철학, Prigogine의 무산구조론 등과 상호 관련 속에서 더욱 발전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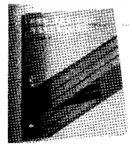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매우 생소하다고 할 이 분야가 중국에서는 비교적 일찍기 소개되었고 또 연구가 상당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중국서(馮國瑞)의 "시스템론, 정보론, 사이버네틱스와 맑스주의 인식론"은 이러한 흐름을 잘 정리하고 있다. 이 책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제1편은 시스템론, 정보론, 사이버네틱스론—이 하에서 '삼론(三論)'으로 약칭함—의 형성과 그 역사적 배경을 다룬다. 제2편에서는 삼론의 내용을 소개하고 그 심과와 의의에 관하여 서술한다.

특히 이 책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제3편이다. 저자에 의하면 삼론과 맑스주의 철학의 관계에 관하여 대립설, 포함설, 동등설, 대체설, 상호부관설, 변증관계설 등 서로 다른 여섯가지 입장이 있다고 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저자를 포함하여 현재의 많은 학자들은 변증관계설을 지지하고 있다. 이들은 맑스주의 철학이 세계관이나 방법론 등에서 삼론을 지도할 수 있으며, 다른 한편 삼론은 다음과 같은 공헌을 할 수 있다고 믿는다. 1. 삼론은 객관세계의 보편적 연관에 관하여 맑스주의 철학을 풍부하게 한다. 2. 삼론은 각기 다른 부문의 공동규율을 제시함으로써 구체 과학과 맑스주의 철학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한다. 3. 삼론은 과학에게 의 변화발전의 기초 위에서 주관능동성을 충분히 발휘케 하고자 하는데, 이는 맑스주의 철학의 근본관점과 일치한다. 4. 삼론은 기렇 시스템의 요소, 구조와 기능, 정보, 피드백 등 보편성을 지닌 새로운 범주들을 제공하는데 이는 맑스주의 철학의 새로운 재료가 되어 그것을 심화시킬 것이다. 5. 삼론은 하나의 참신한 사유방식, 즉 종합을 통하여 분석에 이르고 다시 종합하는 변증법적 통일의 사유방식을 제공하고, 이러한 사유방식은 특별히 전일성, 종합성, 교차성, 동태성, 최적화 등을 강조하는데 이들은 맑스주의 철학의 사유방식에 새로운 길을 열 것이다.' 저자이라고 하겠는데, 거대조직을 관리하기 위한 현실적 필요성과 관련된다고 하겠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중국은 어떤 의미에서는 일반적인 '하나의 국가'와 좀 다른 면이 있다. 11억(14억으로 추정하는 경우도 있다)이 넘는 인구는 세계의 영어사용권 전체 인구에 못지 않으며 그들의 국민은 수많은 민족들로 구성된다. 따라서 중국에서는 다른 나라와 같이 3개년 계획이나 5개년계획이나 하는 프로그램이 적용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국가정책을 일거에 변화시키는 것도 극히 힘들다.

둘째로, 아직 판단하기에 좀 성급한 점도 있지만, 그것은 맑스주의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국가이념을 창출하기 위한 모색의 하나가 아닐까 하는 느낌을 강하게 준다. 개방정책을 편 이래 80년대 이후 다양한 조류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지만 지식인들이 맑스주의 철학 안에 묶여 있는 것을 거부하는 움직은 어렵지 않게 발견된다. 따라서 이들이 서구의 새로운 이론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시스템 이론에 큰 관심을 갖는 것은 그것이 맑스주의 철학의 발전(혹은 계선)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와 관련되어 있다. 한 예로 80년대 초반에 발간되어 이론비 센세이션을 일으켰다는 김관도(金觀濤)의 '흥성여위기(興盛與危機)'를 들 수 있다. '중국봉건사회의 초안정구조(超安定構造)'라는 부제가 말해주듯이 김관도는 이 책에서 '어떻게 하여 중국봉건 사회는 3000년이라는 장기간 동안 지속될 수 있었는가'하는 고전적인 문제에 관하여 시스템이론의 방법으로 해명을 시도하고 있다.

세째로 지적은 그들의 전통문화에 대한 태도와 무관하지 않은 듯하다. 전통 중국은 시스템적 사고가 강한 나라였다. 더욱이 중국에 있어서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는 것의 하나가 중화사상이며, 그것은 사회주의 중국에서도 여전히 유효했다. 이와 관련된 한 예로 근래에 나온 류짱빙(劉長林)의 '중국의 시스템적 사유(중국계통사유(中國系統思維))' (1990)를 들 수 있다. 이책은 전통적인 중국의 세계관이나 사회관 그리고 삶의 방식이 기본적으로 시스템론적 견해와 일치함을 다양한 자료를 통하여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저자는 전통 중국의 천이합일적 우주관, 총체적·전일적인 사유방식, 사회조화론을 비탄으로 하는 인문정신 등의 특징은 오히려 전통문화의 현대화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생각한다.



'시스템론, 정보론, 사이버네틱스와 맑스주의 인식론' (1991. 6, 북경대 출판부)

중국은 자연적 사회적으로 뿐만 아니라 문화적 다양성을 가진 지대한 국가이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부분적인 현상을 가지고 중국의 면모를 짐작하는 것은 매우 무모한 일이다. 우리가 삼론본 책은 여러가지 조짐의 하나에 불과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 책에서 현재 중국의 일부 지식인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을 매우 생생하게 볼 수 있으며, 그 대범한 시도와 진지한 방향 제시에 감동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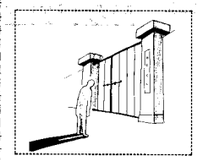
峨時談

엘리트주의=자살행렬(?)

옛부터 우리는 '군사부일체'라 하여 스승을 하늘같이 여겼다. 이것이 지금은 많이 변하였을지라도 그 존경의 마음은 여전히 남아있다.

최근 '옛스승 찾아주기 전화'에 많은 사람들의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고 한다. 각지도 교육청에서 개설한 이 전화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것은 담연지시이거나와 보기에 흐뭇한 모습이 아닐 수 없다. 이렇게 옛 스승을 잊지 못하는 제자와 스승간에 끈을 이어주는 전화가 많은 호응을 얻고 있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스승과 제자사이에 닫힌 문 때문에 함께 하지 못하는 이들이 있다. 바로 해직당하고서 울울로 세월보내 스승의 날을 맞는 '전교조'의 선생님들이다. 참교육의 깃발을 내걸었던 이들이 교사이긴 교사로서 맞는 스승의 날은 실로 가슴저리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들이 제자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분필을 놓아야 했던 것은 바로 비인간적이 교육풍토와 분장에 대한 항거였고 6공화국 교육정책의 편협이 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었다.

지난 15일자 신문에는 두 여고생의 안타까운 죽음이 보도되었다. 중상류층의 가정환경에 반에서도 상위권에 속했던 이들은 성적에 대한 비관과 끝없는 불안으로 결국 목숨을 끊어야 했다. 성적이야말로 미래와 행복을 결정짓는 열쇠로 인정되는 풍토에 성적 하락은 이들에게 절망과도 같았을 것이다. 결국 큰 배후 원인은 사회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것이다. 한해에 자살을



택하는 수십명의 청소년이외에도 각종 청소년 비행, 탈선에는 성적이라는 그림자가 드리운 경우가 많이있다. 비행 성적뿐만은 아니더라도 이는 인간적인 교육부재와 교육행정에 문제가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한 나라에서 교육의 중요성은 재론할 여지도 없지만 현재 우리 교육문제는 가히 '교육의 위기'라고 할만큼 복잡하고 심각하다. 최근 정부의 탄입속에서도 상영되고 있는 '단힌 교문을 열며'에서도 볼 수 있듯이 우리 교육은 입시위주의 풍토에서부터 체제옹호적인 교육내용, 획일적이고 비민주적 교육방식, 열악한 교육환경, 가난의기만 한 학과, 과외, 학원수강으로 인한 교육비 부담과 더불어 학벌위주의 사회풍토까지 얽힌 매듭이 많이 있다. 그러나 정말 문제인 것은 산재한 교육문제보다 문제해결에 대한 정권의 안일한 태도이다. 최근 대학입시 개선안과 실업교육 강화책이 발표되었지만, 이는 단지 졸업장에 덧붙하는 것일뿐 국·영·수 중심의 입시, 학벌위주의 엘리트주의는 계속될 것이기 때문이다.

먼저 정부가 교육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야 한다. 전교조를 감시하고 활동을 규제하는 것이 교육을 위한것이 아닌진대, 전교조 형사에 참여한 무민 학생을 찾아내는것은 더더욱 이해하지 못할 참동이다. 진정 교육을 위해서는 스승이나 스승들이 학생들에게 돌아와야 한다. 여기서부터 우리 교육의 문제를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할 것이다. 스승과 제자와의 만남을 막아야 할 아무런 명분도 없다. 교사는 고단에 서야한다. 닫힌 문이 열리고 스승과 제자가 서로 만나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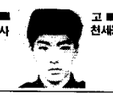
5월 18일은
민자당재집권저지및
민주정부수립을 위한
1차 국민대회가 있는
날입니다.

전민항쟁

오월 열사의 뜻 계승하여 민주정부 수립하자

살아 있음을 느끼자

고 강경대 열사



고 천세용 열사

고 김영균 열사

고 박승희 열사

고 김기설 열사

고 박창수 열사

오월은 전민항쟁의 달입니다.

살아 있음을 느낍시다. 살아 움직이고 있음을 가슴으로, 몸으로 느낍시다. 불감증의 시대라고들 하지만 불감증이라고 변명하기엔 너무나 부끄러운 것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읍니다. 사랑하는 친구의 죽음, 조국의 신음, 민중의 한탄과, 민자당의 횡포, 미국의 거만……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나라를.

거리에서 학교에서, 서울에서 제주에서, 우리가 발딛고 있는 곳곳에서 우리가 살아 있음을 느끼고 그 속에 푸르디 푸른 소나무로 영원히 살아 있을 열사들을 느껴봅시다.

민자당 재집권과 미국을 반대하는 커다란 목소리로 외칩시다. "열사의 뜻 이어받아 민자당 집권 분쇄내자!"

사랑도 맹세도
이룸도 남김없이
한평생 나가자던
뜨거운 맹세
동지는 간데없고
깃발만 나부껴
새날이 올때까지
흔들리지 말자
세월은 흘러가도
산천은 안다
헤어나서 외치는
뜨거운 함성
앞서서 나가니
산자여 따르라
앞서서 나가니
산자여 따르라.

구국의 강철대오
전국대학생대표자 협의회

새날을 여는 민족 자주언론의 선봉
전국 대학신문 기자 연합